‘봄바람 따라, 사람들로 북적이는 고흥 여행지’

녹동바다정원부터 우도 레인보우교까지, 고흥은 지금 봄 피크닉 중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이는 3월의 고흥. 남해안의 푸른 바다와 다정한 섬들이 어우러진 이곳에, 요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SNS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이후, 고흥군의 주요 관광지들은 주말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녹동바다정원이다. 바다 위를 걷는 듯한‘해상 정원’을 따라 걷다 보면 눈앞에 펼쳐지는 남해의 수평선과 마주하게 된다. 사슴과 돔을 형상화한 조형물, 그리고 소록대교와 어우러진 전경이 걸음마다 사진을 남기고 싶게 만든다. 특히 해질녘, 노을이 소록대교 위로 붉게 퍼질 때면 누구라도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인생샷 명소라는 말이 과하지 않은 곳이다.

바다정원 인근에는 고흥 바다의 정취를 그대로 담아낸 맛집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중에서도 여행자들의 마음과 입맛을 동시에 사로잡는 건 단연 장어구이와 장어탕. 고흥산 장어는 기름기 없이 담백하고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라, 한 입만 먹어도 기운이 솟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봄기운이 올라오는 요즘, 지친 몸에 활력을 더하기엔 이보다 더한 보양식도 없다.

식사 후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여유를 즐겨보자. 이 일대에는‘고흥 커피 맛집’으로 불릴 정도로 입소문이 난 카페들도 있다. 남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마시는 한 잔의 커피는 그 자체로 힐링. 창밖 풍경과 잘 어울리는 디저트 한 조각까지 곁들이면, 여행의 여운은 더욱 깊어진다. 관광객들 사이에선 “커피 한잔하러 다시 오고 싶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올 정도다.

소록도는 여전히 고흥을 대표하는 힐링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다. 섬 전체가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천천히 걷기만 해도 위로받는 듯한 기분이 든다. 최근엔 소록대교를 건너면서 바라보는 석양 풍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주목받고 있다. 섬 안에 있는 한센병 박물관이나 중앙공원은 사색과

치유의 시간을 주는 명소들이다.

고흥 여행의 특별함을 더하는 또 하나의 장소, 바로 고흥우주발사전망대다.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기지를 배경으로,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가득하다. 7층에 위치한 전망 카페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탁 트인 창 너머로 펼쳐지는 남해바다와 우주기지 전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시원해진다. 아이들은 아래층에서 과학 전시와 VR 체험을 즐기고, 어른들은 위층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발사대 전경을 감상하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다. 고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우주와 바다를 동시에 누리는 시간’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곡성몰, ‘배(Pear)스트 프라이스 30% 기획전’ 진행

가시버시 농원, 곡성몰 입점업체 단독 할인 기획전 실시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인‘곡성몰’에서 입점업체 단독 할인 기획‘배(Pear)스트 프라이스 30%’기획전을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곡성 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실속 있는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곡성몰 입점업체인 가시버시농원이 군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첫 할인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할인 품목은 배 단일 품목으로, 곡성군 죽곡면 청정지역에서 정성껏 재배한 ‘곡성 심청배’를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본 기획전은 상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곡성몰은 계절과 소비자 니즈에 맞춘 다양한 기획전을 매월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첫 입점업체 단독 할인 행사인 ‘OK 옥과농협 기획전’에서는 8일간 총 1,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바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입점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단독 할인 기획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도 곡성몰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담양군 무정면,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 추진

사계절 푸른 녹색마을 만들기 위해 지역 사회단체 동참

담양군 무정면은 지난 24일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해 주민자치위원회, 의용소방대 등 지역 주민과 함께 나무 심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봉안리 오례천 주변 산책길에 홍가시나무 40주를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심으며 나무 심기와 산림 가꾸기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그동안 벚나무 산책로로 이용되던 봉안리 오례천은 앞으로 홍가시나무와 조화를 이뤄 주민들이 자주 찾는 쾌적한 쉼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면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추가 식재를 통해 오례천변을 지역의 명품 산책로로 가꿀 계획이다.

안영선 면장은 “오늘 심은 나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역의 건강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식목일 행사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무 심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나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 도입

4개 언어, 증명서 7종 지원… 시청 민원실·빛가람동 우선 운영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관내 외국인 거주자의 민원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정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시는 행정수요가 많은 시청 민원실과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 우선 적용했다.

지원되는 언어는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일본어 등 4개이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7종의 서류가 발급 가능하다.

나주시는 운영 성과를 분석해 향후 외국어 서비스 도입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어 해석본 민원서식 비치,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전단지 번역·배포 등 관내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김미령 시민봉사과장은 “다문화 사회 흐름에 맞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화마(火魔)는 없다… 장성군, 산불 방지 ‘총력’

현장 예찰 강화, 주민 계도, 상황 대응 주력

장성군이 봄철 산불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앞선 1월 25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진화대원과 군 공직자 67명으로 구성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방지활동 및 주민 계도 △산불 발생 시 현장 출동 △진화 및 뒷불 정리 △기타 산림자원 관련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산림과 가까운 지역은 매일 확인하고 산불 예방을 홍보하는 등 현장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살펴 화재 발생에 빠르게 대응한다.

지역 내 마을 481곳에선 마을방송을 통해 산행 시 담배·라이터 소지 금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선제적인 산불 대응에도 만전을 기한다. 장성군은 과거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단계별 세부 대응책을 점검 중이다.

24일 오전 진원면 고산저수지를 찾은 김한종 장성군수는 “2015년 3월 진원면 불태산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나흘에 걸쳐 진화 작업이 이뤄졌으며, 3헥타르(ha) 이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한편, 장성군의 산불 대응 태세는 지난 1월 발생한 서삼면 송현리 산림 화재 현장에서도 이목을 끈 바 있다. 군은 산불 확인 1시간여 만에 주불을 진화하는 등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함평군, ‘행복함평 활력 찾기 워크숍’ 여정 시작

전남 함평군이 주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를 본격 추진하며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나선다.

함평군은 25일 “2025년도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함평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센터장 주진백)와 함께 9월까지 ‘행복함평 활력찾기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지난 22일 손불면 수연마을, 엄다면 삼정마을을 시작으로 ‘행복함평 마을학교 씨앗반’ 교육을 수료한 총 9개 마을이 참여한다.

참여 마을은 9월까지 주민역량 강화 교육, 마을 테마 발굴 워크숍, 선진지 견학, 마을 발전 과제 발굴 워크숍 등 마을별로 총 4회 걸친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함평군은 워크숍 종료 후 11월에 ‘행복함평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해 함평군 농촌 마을 공동체 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마을별 성과를 공유하고 마을간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도모해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별 발전 의제를 바탕으로 3개 마을을 선정해 각 마을당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주민은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을 발전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며 “워크숍을 마련해준 함평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더욱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함평/전광춘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